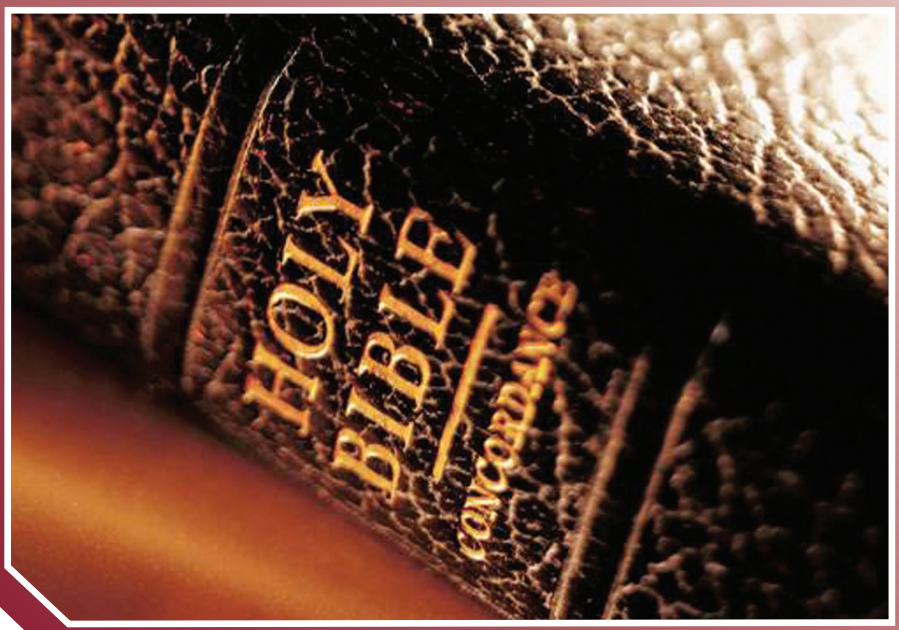
Volume 20 Number 09 09 2012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동성애(Homosexuality) 시리즈(5)

동성애—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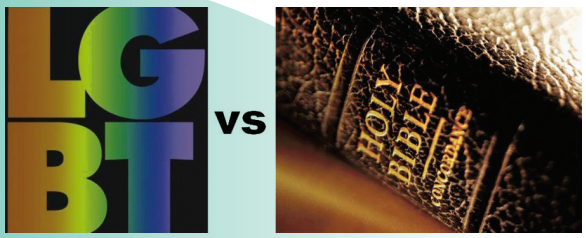
"정말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 써있어요?" 필자가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 받았던 질문이다. 아마 그 유명한 십계명에도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창조과학자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접근해본다. "과학적으로 맞는가(scientific)?" "그 결과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social)?"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biblical)?" 이다. 이미 앞 칼럼에서 동성애자가 생물학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과 동성행위에서 파생된 심각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성경

은 동성애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알아볼 순서다.

성경전체가 말하는 바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아주 선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장 분명한 곳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일 것이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 동성행위를 한 자는 '죽이라'고 하셨다. 즉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구분하신 것이다. 레위기의 다른 곳에서는 "가증한(detestable: 혐오할만한) 일"(18:22)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도 동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며 실제로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보면 엿볼 수 있다. 소돔사람들이 롯의 집에 온 천사들에게 "상관하리라"(5절)고 했는데, 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we can have sex with them(NIV)" "we may know them carnally(색정적으로) (NKIV)" 등으로 번역되었다. 이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했을 뿐 아니라 동성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7)고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 불로 형벌하신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자세는 구약과 차이점이 없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those practicing homosexuality)"(딤전 1:9, 10). 개역개정 성경이 "남색하는 자"로 번역한 것을 영어 번역은 homosexuality로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다. "미혹 받지 말라… 남색하는 자나(men who have sex with men)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 동성애를 하는 상황에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로마서에서는 구체적인 문장을 할애했다. "곧 그들의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received in themselves the due penalty

for their perversion)"(롬 1: 26, 27). 동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적 행위에서 벗어나 역으로 행하는 것이며, 부끄러운 일이며 이에 대하여 보응도 이미 받았다고 했다.

동성애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심각한 결과를 주었는지 이전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에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하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동성애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신 극단적 조치는 그 목적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명령이며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동성애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관계와 질서를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다.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가장 첫 번째 관계임과 동시에 올바른 질서다. 이는 창조 때부터 드러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창조자의 형상이며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지어졌다. 예수님께서도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막 10:6)라고 하시면서 창조 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셨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는 타락한 후에 발생한 것도 아니요,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죄짓기 이전에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 1:31)하시는 완전한 작품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첫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라고 하시며, 시작부터 '한 몸'에 대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한 시작은 '나는 누구인가'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다. 동성애자의 리더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진화론적 사고로 동물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2012년 7월호 Creation Truth 참조: 실제로는 동물에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 이런 자세를 보더라도 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동성행위에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동물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형상이며, 동물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라고 그 관계를 분명히 한다. 또한 성경은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한 혈통'(행 17:28)이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육하라"(창 1:27). 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명령이다. 첫 명령이니만큼 그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이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기를 계획하신 것이다. 한편 동성애는 이 명령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 어떤 경우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대항하는 중대한 죄인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이성부부와 동일하게 입양을 하기를 원한다. 애를 낳지 못하는 자신들도 이성부부와 같이 애를 키워보고 싶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성부부에게 입양되는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연 인도적 차원으로 부모가 없는 이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다행한 일일까? 동성부부에게 입양된 이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것은 너무 자명한 것이다.

성경은 일차적으로 남녀로만 '생육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남녀의 관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성경은 남녀라고 아무나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만 허락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동성애는 죄에 죄를 더한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며, 하나님은 사형이라는 엄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이다.

동성애도 결국 성경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만약 교회에서 동성애를 허용하거나 침묵의 자세를 취한다면, 이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읽을 때는 눈을 감겠다는 의미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교회는 그렇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막 8:38).

앞서 과학적 내용을 다룰 때 성염색체에서 XXY 남성, XYY 남성, XXX 여성 등과 같은 잘못 된 경우들이 생겨 난 예들이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특이한 예들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한 타락한 세상에 존재하는 아픔들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짓기 이전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타락 후 변질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을 보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첫 모습을 확인해야 한다. 즉 우리는 타락 후의 모습으로 타락 후의 환경에서 살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함으로써만 그 첫 모습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타락된 잣대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은 자신 스스로는 무엇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동성행위의 당위성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동성애를 느낀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것이다. 그러나 탐나는 물건을 보고 자연스럽게 탐욕을 느꼈다고 그 도벽을 그냥 놔둘 수 있을까? 포르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묵과할 수 있을까? 마약을 보고 나도 모르게 마약을 하게 되었다고 이를 허용할 수 있을까? 동성애도 그 충동이 난다고 해서 그냥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을 오히려 "다스리라"(창 4:7)고 하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타락한 이후의 세대는 본받는 대상이 아니라 분별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그 분별은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 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타락한 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분별이 가능해 진다. 그런 면에서 앞선 칼럼이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 결과를 제시했을지라도, 이는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보여준 것일 뿐이다. 결국 동성애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답변이 가장 최종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만큼 단호히 금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여름 방학을 통해 이어지는 탐사여행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여름 방학 동안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빙하시대뿐 아니라 2세들을 위한 영어 탐사여행 등 다양성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11번의 탐사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빙하시대 탐사여행

빙하시대 탐사여행은 요세미티 국립공원, 시에라 산맥, Owens 분지에 남겨놓은 빙하시대의 흔적으로 보며 노아홍수에 이어지는 빙하시대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 2월에 처음 출발한 이래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빙하시대와 매머드 같은 과학적 내용이 바벨탑이나 욥기와 같은 성경과 연결될 뿐 아니라, 인종, 종분화, 공룡, 인간의 수명, 언어의 기원과 같은 궁금증이 마치 퍼즐조각 맞추듯이 들어맞는 감격이 있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담임목사 권준)는 지난 7월 13-15일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1부 성가대를 주축으로 이루어졌는데, 형제교회는 올해만 두 번째 탐사여행입니다. 시에라 산맥을 넘으며 Olmsted Point에서 울려 퍼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환호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샌디에고 교역자 협의회(회장 강용훈 목사)는 지난 7월 23-25일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지난 2007년 그랜드캐년 탐사여행 이후 5년만입니다. 43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과학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기타 창조과학 탐사여행

나성서남교회(7/19-21, 담임목사 김광철), 개인모집 탐사여행(7/19-21),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 양산 명동교회(7/30-8/2, 담임목사 이용걸 & 김용기)에서 연이어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각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흔적을 목격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에 창조과학이 반드시 필요한 사역임을 공감했으며, 2세들을 프로그램의 스케줄을 잡기도 했습니다.

창조과학 세미나

지난 7월 14-15일 토랜스 은혜로교회(담임 김경환 목사)의 청년 수련회(최우성 박사 인도)를 비롯하여 LA 온누리교회(7월 22일, 이재만 부회장)와 Irvine 온누리교회(매 주일, 최우성 박사)의 새신자반 강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김선욱 박사는 영어권을 위한 세미나를 All Nations Church, Vienna VA에서 7월 15일과 22일 주일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9월 창조과학 강연은 일정을 보시고 기도와 적극적인 참석 부탁 드립니다.

힉스 입자, 신의 입자를 찾았나?

지난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매스콤들은 과학기술자들이 신의 입자로 알려진 힉스입자를 찾았다고 일제히 보도하였다. 미국의 페르미 연구소(Fermi Lab)의 가속기 보다 강력한 입자가속기(CERN)가 2008년 유럽의 스위스에 완공된 후 모든 연구는 이 힉스입자를 찾는데 집중되었었다.

힉스입자(Higgs Particle)는 1964년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 힉스 교수가 모든 소립자에 질량을 결정해 주는 존재를 가정함으로 유래된 가상의 입자로 최근에는 신의 입자(신이 숨겨놓은 알 수 없는 입자)로 알려졌다. 이 입자는 고에너지 상태에 출현하여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는 물질 속에 숨어 있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해왔다. 대부분 과학자들은 입자물리의 표준모델(쿼크입자 6개, 경입자 6개, 매개입자 4개)에서 마지막 입자로 힉스 입자의 존재를 기대해왔다.

비록 여러 과학자들이 싫어하는 표현임에도 이 입자가 신의 입자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 힉스 메카니즘이 궁극적인 물질의 기원을 증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질량이 힉스장에서 한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며 정확히 말하자면 이 질량이 입자(힉스 입자일 가능성이 있는)로 이전되는 것을 찾아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힉스 메카니즘은 궁극적인 물질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험은 양성자 빔(Proton beam)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키고 가속된 두 빔을 서로 충돌시켜서 이 때 발생하는 고열의 에너지와 수억개의 파편 입자들

을 분석, 연구하게 된다. 2008년 연구소 개관 후 2009년 11월 양성자-양성자 빔 충돌시험은 각 빔당 450 GeV의 에너지를 투입하였고, 2012년 3월 30일에는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높은 에너지라 할 수 있는 3.5TeV로 높여서 두개의 빔을 충돌시켰다. 앞으로 2014년 까지 최고 7TeV 에너지 빔을 만들어 실험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소 개관 당시 아이머(Robert Aymar) 소장은 "이 거대 입자 가속기는 우주 창조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공언하였다. 즉 우주 생성의 신비를 실험을 통하여 풀어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무엇 보다도 지금까지 미스테리로 알려진 표준모델의 16개 입자로 하여금 질량을 갖게하는 힉스입자 존재를 알아 내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었다.

실험을 통하여 과연 창조의 신비를 알아 낼 수 있을까? 성경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히브리어로 바라)는 절대무, 즉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빛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에 쓸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런데 실험은 이미 존재하는 양성자 빔을 가속시키고 서로 충돌시켜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입자 파편들을 연구한다.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 과학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열역학 제1법칙)이다. 즉 에너지는 저절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저절로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법칙이다. 따라서 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물질)는 창조되었다는 것이며 다른 대안이 없다. 오직 절대 무로부터 창조를 증거하는 법칙이다. 그런데 가속기 실험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에너지)로 출발하는 점에서 창조를 증거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또한 우주를 지배하는 두번째 물리법칙은 무질서 증가의 법칙(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또는 열역학 제2법칙)이다. 이 법칙은 우주의 모든 자연과정은 무질서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유용한 에너지는 감소하고 쓸모없는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예외가 없는 법칙이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행하는 어떤 폭발도 그 폭발로 인해서 질서가 증가하지 않으며 더 무질서해지고 만다. 따라서 가속기를 통한 빔의 충돌실험은 두번째 물리법칙, 무질서 증가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와 그 조화와는 거리가 먼 실험인 것이다.

앞에서 두 물리법칙의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누가 뭐래도 이번 실험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연구진과 첨단 기술이 총 동원된 이 실험이었다. 이를 통해서 그간 알지 못했던 발견들이 풍성하고, 또 그 발견들이 인류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 실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스런 일인지 실감할 수 있어야 하겠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티끌 먼지 보다도 작은 미립자를 통해서 창세로 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핑계치 말고(롬1:20)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힉스입자와 빅뱅이론은 다음호에 계속)

참고/ http://www.fnal.gov & http://lhc.web.cern.ch/lhc/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창조과학: 성경과 사랑에 빠지기

"우리는 단세포생물로부터 진화된거야. 창세기는 그러니까 신화인거지. 그냥 믿는 수밖에…"

"45억년이라는 지구의 나이와 하나님이 6일동안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아. 그냥 믿는 수밖에…"

"노아 홍수? 그거 그냥 중동지방에서 있었던 홍수 이야기 아니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취급되는 데 대해 뭔가 답답함과 분노를 느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받는 아래와 같은 질문의 심각성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NO, 성경은 사실을 적은 책이 아니라는데요?"

"예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성경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동성애도 싫어하시는 것 같고… 그게 왜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잖아요. 부모님께 여쭤봐도 말씀을 안하시고 그냥 믿으래요. 친구들이 좋아서 다니는 거지만, 확신이 안 생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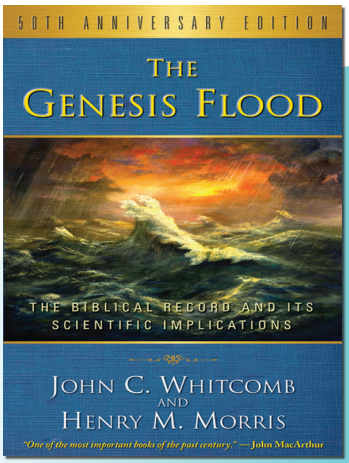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

고등부를 채우고 있어야 할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면 20년 후, 많은 교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를 지킬 신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에 대한 확신"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와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신화에 불과하고, 성경의 기적들은 사실 여부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식의 잘못 된 주장에 기성 세대가 확신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 젊은 세대가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명은 믿지만 역사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은 믿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 이 찢어진 믿음 사이에서 젊은이들은 방황하다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선교회가 하는 사역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벅차게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것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벅차게 믿는 믿음의 기초는 바로 성경에 대한 확신과 사랑입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과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창조과학선교회가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역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증거들과 과학적 연구결과들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역입니다. 오늘날의 몇몇 유명한 무신론적 자연과학자들은 오랜 지구와 단세포생물로부터 시작되는 계통진화를 주장하지만, 실제 과학적 연구결과들 가운데는 젊은 지구와 창조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창조과학선교회는 우리가 교과서나 대중매체를 통해 막연히 들은 지구와 생물의 역사에 대한 과학적 논쟁을 소개하고, 과학적 발견들이 성경이 기록한 지구와 생물의 역사를 지지함을 전합니다.

창조과학선교회의 또 다른 초점은 성경에 대한 불신이 교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일입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단지 과학적 논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초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이 영혼이 없는 물질로부터 우연히 발생되어 온 존재라면 어떤 논리를 사용해도 도덕과 윤리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만이 올바른 도덕과 윤리의 기초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창조과학선교회가 전하는 것은 **성경과 과학 그리고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사실인가요 신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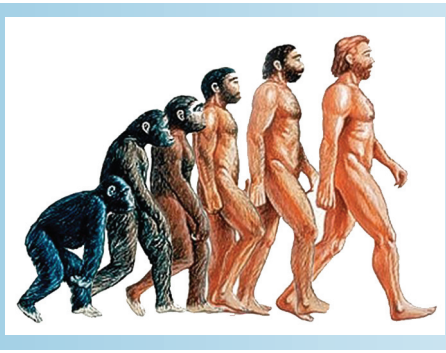
이 질문과 관련된 세미나에서 우리는 전지구적 홍수가 불과 수 천 년 전에 발생했다고 해석되는

과학적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 천 년 전 발생했을 전지구적 홍수가 바로 노아 홍수임을 밝힙니다. 이를 통해 노아 홍수는 신화가 아니라 생생한 사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와 노아 방주를 이해함으로써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어떻게 진실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주의 나이는 150억년, 지구의 나이는 45억년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대로 아주 젊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증거들과, 우주의 나이 및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측정법이 과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빙하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빙하시대가 아주 오래전 있었던 "긴 시대"가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 (특히 바벨탑 사건에서) 아브라함 사이(특히 욥기)에 특이한 기후를 겪었던 하나의 "시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해하면 비로소 다른 종교와 다를 것 없는 신화처럼 보였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이 실제 지구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을 큰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생생한 과학적 증거들과 성경 말씀이 조화되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가는 것("성경이 사실이었어요!")을 창조과학선교회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관련 세미나: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 빙하시대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나요 창조되었나요?

이 질문과 관련된 세미나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과학적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창조된 인간이라는 메시지는 창세기를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는 "그런가보구나" 할 수는 있어도 절대 사실이 주는 확신과 감격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진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과학적 주장을 소개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창조주의 손길을 깨닫게 하는 과학적 결과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과연 인류의 기원이라는 화석들이 올바른 것인지, 인류 문명의 기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창세기에는 인류와 문명의 기원이 다 적혀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사심이 진정 복음이 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화가 아니라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복종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관련 세미나: 종의 기원, 생명의 기원, 지적설계,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기원, 노아 방주, 빙하시대, 기독교 세계관

과학과 성경 중 어느 것이 옳은가요?

지구과학과 생물학은 창조과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분야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철학입니다. "과학자들이 진화가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 즉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적 지식이 다룰 수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돕습니다. 경험에 기초하는 과학적 지식의 한계와 오늘날 맹목적으로 무신론을 가정하는 일부 과학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가 되어가는 과학의 한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한 확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 ("신약" 혹은 "예수님" 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확신이 올곳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정신과 명령에 따라 오늘날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미나: 과학의 한계와 패러다임,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한국창조과학회미주지부

마지막으로 창조과학선교회는 위의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창세기, 특히 1장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앞의 지질학, 천문학, 생물학, 인류학, 과학철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미나를 통해 창세기 1장이 6일간의 창조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신학적 주장들의 논리적, 실제적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창세기 1장이 우리 믿음의 기초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렸을 때 영국과 미국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져갔고, 사회 문제들이 증가해 왔으며, 무신론이 퍼졌는가를 살펴보고, 무신론적 과학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성경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관련 세미나: 진화의 반대는, 창세기 1장, 기독교 세계관

성경은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이방과 다음 세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가 전하는 위의 모든 내용들은 감사하게도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기성세대를 위한 한글 강연,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영어 강연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기성세대 및 젊은 세대를 위해 위의 내용 모두를 전할 수도 있고 (창조과학학교, 창조과학탐사여행, 창조과학캠프, 부흥회 등), 원하는 주제의 세미나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창조 신앙, 성경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창조과학선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탐사여행

5/22 – 5/25/2012

귀국하는 대로 창조과학탐사 팀을 모아서 1년 동안 교육시켜 인솔해 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 *이경준 목사 〈서울 다운교회〉 이랜드*

창조과학탐사는 이 시대의 잘못된 개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 우리 아이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만선교사님의 3권의 책을 전교인 필독서로 삼으려고 합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두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고 싶습니다. – *심영순 목사 〈제자교회〉*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고백했던 욥처럼 하나님을 마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 *박경남 목사 〈수지 제일교회〉*

이번 창조과학탐사여행을 통해 저에게 두가지의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오해와 궁금한 점들을 … 정리 할 수 있었던 것과 …성도들과 젊은이들에게 특히 Vip 들에게 그냥 믿으라고 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도록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 *이재철 목사 〈열린문교회〉*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진화론의 잘못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지만 표피적인 대응만 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원재 목사 〈뉴욕 꿈이있는교회〉*

성경은 자연과 역사 모두가 일치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설교자로 자신 있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 *김원기 목사 〈뉴욕 베데스다교회〉*

창조론을 따르고 진화론을 배격한다고 제 스스로 말해 왔는데, 우리가 아는 창조론은 진화론적인 창조론의 요소가 많다고 깨달았습니다. … 청소년, 청년 특히 목회자와 교사들은 필수 과정이라 적극 추천합니다. – *김석만 목사 〈서울 예원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해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화론을 믿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꼭 탐사여행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이정란 사모 〈천안 제자교회〉*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 죄의 결과로 파괴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지구는 상상 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 *이은주 사모 〈벤쿠버 행복한교회〉*

그랜드케년을 여행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때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의 비밀과 역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일정이었습니다. – *천석길 목사 〈구미남교회〉*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냥 익숙함에 머물렀던 부분이 이번 여행을 통해 가슴아프게 다가왔습니다. – *이종수 목사 〈구미남교회〉*

이재만선교사님의 열정과 사명감에 전염되어 돌아갑니다. 교육은 반복이라 했는데, 두 번째 여행으로 모든 것이 더욱 뚜렷해지고, 확실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 *최혜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경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경환 〈온누리교회〉*

진화론의 잘못된 문제점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 할 수 있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김재정 〈아틀란타 한인침례교회〉*

진화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자신을 보고 회개 했습니다. – *김정숙 사모 〈뉴욕 베데스다교회〉*

'내 손에 성경이 들어왔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원수미*

딸(원수미)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창조과학탐사여행을 따라 왔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저희 아들 원태연이 오면 정말 좋은 여행일 것 같습니다. – *김종숙 〈얼바인 베델교회〉*

나는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이재만선교사님의 설명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화론에 의하여 형성된 패러다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후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안태준 목사 〈인천 등대교회〉*

시기적으로도 동생애 문제로 미국과 앞으로의 미국학교 교육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시기에 창조과학탐사여행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2세 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 *정영민 목사 〈포도원교회〉*

지금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 심판의 결과임을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들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더 전달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기쁨으로 강의해 주신 이재만선교사님께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 *정영미*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www.hisark.com의 "간증"란을 클릭하세요.

사역일정 *2012 ACT Schedule*

9/2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9/6 O.C. 영락교회 (이재만)
9/7-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9/7-9 Church of Bethlehem Chicago IL (김선욱)
9/9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9/10-11/12 중부 창조과학학교 제13기 (시카고 제일한인장로교회, 이동용), IL
9/14-16 알라바마주 몽고메리늘푸른장로교회 (이재만)
9/14-16 Renewal Community Church in Bristow, VA(김선욱)
9/16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9/23 LA 온누리교회 (최우성)
9/23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9/20-25 일본방문(이재만)
9/25-10/15 한국방문(이재만)
9/25 횃불트리니티 CEO 스쿨(이재만), 한국
9/29-30 몽고메리제일감리교회(김선욱)

10/2 전주대학교(이재만),한국
10/7 파주순복음 풍성한 교회(이재만), 한국
10/9 전주대학교(이재만, 한국
10/11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이재만), 한국
10/13 새벽나라 세미나(이재만), 한국
10/14 부산 동산교회(이재만), 한국
10/21 하늘 빛 선교교회(이재만)
10/22-25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각장애인선교연합회) 213-381-1390 (최우성)
10/22-27 창조과학 탐사여행 (이랑학교)
10/28 하늘 빛 선교교회(이재만)
10/28-11/1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모집)

11/2 한사랑교회 (213-219-7500), CA, 이재만
11/5-7 창조과학 탐사여행 (뉴욕 퀸즈한인교회)
11/12-14 창조과학 탐사여행 (나성순복음교회)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